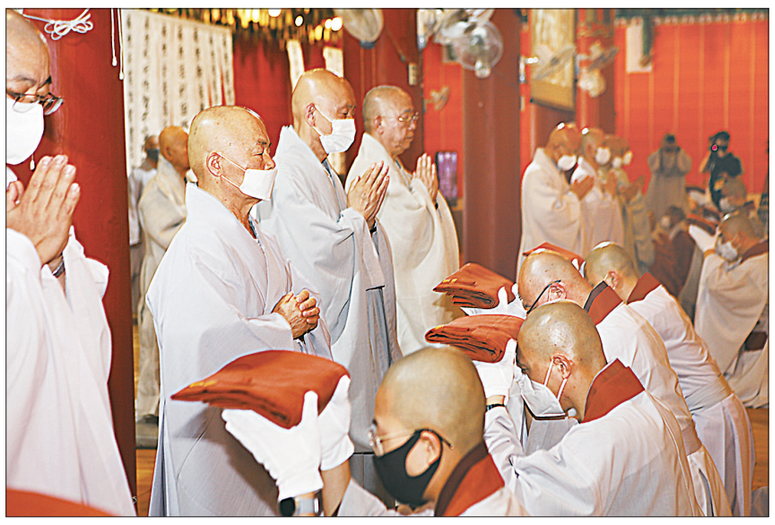
통도사 계묘년 가사불사·생전예수재 봉행

가사불사·생전예수재 2월 27일 입재
4월 9일, 4월 16일에 각각 회향의식
생전예수재 기간, 현문 스님 등 법문
영산전에 가사당 설치 외부 출입금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계묘년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사진은 2020년 진행된 가사불사 회향에서 가사를 올리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2월 27일 오전 10시에 함께 입재하여 가사불사는 4월 9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는 4월 16일 오전 8시에 회향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에는 주지 현문 스님과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법문을 한다. 현문 스님은 입재일이자 출가재일인 2월 27일 오전 10시에 '도솔래의상(兜率來儀象)'을 주제로 설법한다. 팔상(八相) 중 하나인 '도솔래의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현문 스님은 '도솔래의상'을 주제로 출가재일에 담긴 의미를 설법할 예정이다. 법산 스님은 3월 19일에, 덕문 스님은 4월 2일에 법문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 자신을 위해 지내는 재로서, 윤달이 있는 해에 사찰에서 시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이다.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3대 재회(齋會) 중 하나이고 천도재 성격을 가지지만 망자를 위한 천도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해 진행하는 의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를 의미한다.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마련하는 재의식으로 동참자 스스로가 의례의 주인공이 되어 의미가 크다.

가사불사는 법의인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올리는 불사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음식과 약, 방사와 함께 재가자가 출가수행자에게 올리는 사사공양(四事供養)의 하나였다. 부처님도 가사불사의 공덕은 한량없다고 했다. 특히 지장율사의 가사를 모시고 있는 통도사에서의 가사불사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4월 16일 열리는 생전예수재 회향식에서는 전통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을 선보인다. 생전예수재 전통 작법의식을 위해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윤달이 돌아오는 4년 마다 생전예수재와 함께 가사불사를 봉행해 왔다. 윤달 기간 가사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의 전통이며 신도들이 가사불사에 동참해 무량한 공덕을 짓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통도사는 영산전에 가사당(袈裟堂)을 설치하고 발을 쳐서 결계를 삼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가사불사에 진력한다. 가사불사를 위해 도편수 스님이 지도하며 불자들은 직접 가사를 짓는다. 4월 9일 회향일에는 이운식이 진행된다.

이날 통도사 사부대중은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한 대가사와 통도사 가사당에서 제작한 오조가사를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한다. 통도사 율원에서 집전해 가사를 이운하고 설법전 상단에서 점안식 후 스님께 공양한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공덕을 쌓고 살아생전 자신이 지은 잘못을 참회하는 기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동참해 무량복덕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81-1288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단청, 서각 등 6개 전통문화 과정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이 2023년 상반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화와 단청, 서각, 전통사경, 생활자수, 전각 등 6개 전통문화 과정으로, 3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5개월 과정이다.

불화는 조해종 불모가 담당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은 기법과 재료에서 전통불화의 맥을 잇는 불모 양성소로 자리 잡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실습과 강의를 구성하고, 조해종 불모는 20년 가까이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단청은 조경미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수업은 단청 속에 담긴 상징세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작품 완성까지 진행한다. 현재 취미반과 자격증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반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시험(화공) 부분에서 매년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서각은 김진희 작가와 서용수 작가가 수업을 담당한다. 김진희 작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용수 작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수업을 진행한다. 서각반은 불교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매해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전통사경은 오현주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생활자수는 강남순 바람의화원 대표가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전각은 최두헌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강좌 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전화(055-384-0020) 및 홈페이지(www.tongdomuseum.or.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성운대사 추모법회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2월 8일 경내 법당에서 2월 5일 입적한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대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입정에 이어 추모 점등, 성운대사 추모영상 시청, 추도사, 추모명상, 시식 순으로 이어졌다.

심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20여 년 동안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가르침에 감화되었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며 "속환사바하셔서 중생을 위해 다시 법을 펼쳐줄 것을 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성운대사는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성운대사는 지난 2003년 홍법사를 방문해 심산 스님에게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인증서를 전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원했다. 홍법사는 매년 성운대사가 건립한 대만 가오슝 소재 불광대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20명을 선발·초청했으며,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성운대사가 홍법사 창건주 故 하도명화 불자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부산서화108인초대전에 친필 휘호를 보내기도 했다. 창건주 하도명화 불자는 1970년대 당시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엿보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환경연대 전국 활동가 워크숍 개최



2월 8~10일, 부산 대원각사서
활동방향·역량 강화 등 모색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부산 대원각사에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환경연대의 활동방향과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친교 증진을 위해 열렸다.

법만 스님은 "환경문제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활동 방향을 도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환경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보람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저희 절에서 워크숍을 열어주셔서 큰 영광이며 무탈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의 '산림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과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대표의 생태문화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가덕도, 낙동강 하구둑, 외항포, 국수봉 등 현장을 탐방하고 환경명상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재두루미 먹이를 위한 볍씨 후원을 받고 있다. 재두루미의 먹이인 벼는 40kg 당 7만 7000원이며 볍씨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 모금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문의 (02)720-1654.

이도경 부산지사장

명경문화재단, '이-음 콘서트' 출발



쿠무다 콘서트홀서 2월 8일
'앙상블 튠' 첫 연주로 시작
이번 시즌, 심장병어린이 후원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젝트 '이-음 콘서트'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수요음악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은 2월 8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2023 수요음악회-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와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앙상블 튠'의 연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음악회는 2월 15일 '도담앙상블'과 22일 '친친탱고'의 무대로 이어진다. 공연은 7시 30분에 시작되며 전석 1만 원이다. 이-음 콘서트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이-음 콘서트는 지난해 4월부터 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연주 실력이 뛰어나도 공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연주자와 관객을 이어준다는 취지로 '이-음'이다. 이번 시즌은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해 진행돼 의미가 특별하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한 공간을 발원했다. 예술가들과 대중들이 함께 일궈가는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해는 특별히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에 뜻을 더했다. 음악을 향유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동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정초기도 나눔으로 회향

지역민에 백미·점심 식사 등 나눠



부산 천불정사(주지 법경)가 2월 6일 경내 마당에서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천불정사는 백미 1000kg을 장전2동 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백미는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백미는 정초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천불정사는 청년회 활동비 300만 원을 천불정사 청년회 '법향'에 지원했다. 천불정사 청년회 '법향'은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상포교를 위해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그동안 제작한 포교 영상을 신도들에게 보여주며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천불정사는 2월 9일 금정구재향군인회여성회, 고담나누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공양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정초를 맞아 기도한 정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자비심을 배우고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다"며 "청년들의 활동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활동을 위해 적극 지지하고 포교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남성중창단 찬불가 발표회

2월 24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찬불가 신작 음반 '연꽃으로 피어나리' 발매 기념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는 2월 24일 오후 7시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황룡사' '삼보인연' '한송이 연꽃(서근영)' '겨울눈봄꽃' '땅에서 넘어진 자' '연꽃법당' '마음고요' '인과의 그림자' 등 신곡을 발표한다.

박준홍 단장과 정우진 부단장, 신현욱, 문정재 테너, 추현철, 조창준, 양영승 바리톤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진아, 정꽃님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담당한다.

BTN불교TV남성중창단은 지난 2014년 12월 창단됐으며 단원은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지역에서 사찰 합창단 지휘자로 활약해 온 불자 남성 성악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015년 BTN 특집 'BTN중창단 자비의 법음을 전하다'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포항불교합창제' 등 각 사찰과 많은 불교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쳐 오고 있다.

2016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시작으로 신작 찬불가 음반을 발매하고 있으며 찬불가를 보급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연꽃향기' 시리즈의 세 번째 찬불가 음반인 '연꽃으로 피어나리'는 지난 2022년 6월 발매됐으며 이번 공연은 음반 발매 후 첫 단독 발표회다.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은 부산공연 후 3월 26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제주 공연도 계획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聯, 대보름맞이 행사 체험

제20회 사상전통 달집놀이 행사 참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상구불교연합회는 2월 5일 부산 사상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사상전통 달집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전통 달집놀이 행사에서 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액운을 없애는 삼재풀이, 액운풀이 달집태우기 등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사상구불교연합회가 주관한 체험 부스를 방문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작성하고 달집에 넣어 한 해의 소망을 기원했다.

회장 성림 스님은 "제가 올해 신임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교문화 홍포에 힘쓰겠다고 서원을 세웠는데 심인택 신도회장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 이번 부스를 마련했다. 사상구민들에게 불교문화를 홍포를 하고 구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사상구에서 주최한 전통 달집놀이는 2000년에 시작됐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3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 이번 해 새롭게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민 10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망기원 지신밟기, 제기차기, 타로, 대북공연, 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에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 미륵암 용왕대재·방생법회 봉행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등 발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이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가의 안녕과 평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용왕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남해 물건항 앞 바다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미륵암 신도와 지역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미륵암 청운 스님의 인례에 따라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지구촌 전쟁종식과 전쟁으로 인한 조속한 피해회복,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발원했다.

이어진 방생법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평화, 코로나 조기종식과 사부대중의 건강을 기원했다.

미륵암 청운 스님은 "현 시대는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